

# ‘눈이 부시게’, 한지민→김혜자 만드는 ‘명품 드라마’



‘눈이 부시게’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9일 방송된 JTBC 월화 드라마 ‘눈이 부시게’(이남규 김수진 극본, 김석운 연출) 4회는 유료

##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 선사하고 있어

체 최고 시청률에 해당한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이미 6.1% 시청률을 기록하며 JTBC에 세 역사를 선사하는 중이다.  
이날 방송에서 김혜자(김혜자/한지민)와 이준하(남주혁)는 다시 인연을 시작했다. 김혜자는 난리 통에 집을 나간 밥풀이가 이준하네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준하와 함께 있는 강아지는 밥풀이가 분명했지만, 정작 밥풀이는 혜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으르렁댔다. 늘어버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혜자는 스물 다섯 혜자가 지주 입던 옷을 입고 준하의 집을 찾았다. 혹시 준하도 알아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준하도 밥풀이도 혜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미 녹음이란 이름을 붙이고 밥풀이와 정을 들인 준하는 혜자의 말만 믿고 보낼 수 없다고 맞섰다. 혜자와 준하는 밥풀이에게 선택을 맡겼고, 망설임 없이 밥풀이가 자신을 물어버리자 혜자는 설움이 폭발했다.

혜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줄 알아야하지”라는 하소연까지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혜자를 보며 스물 다섯의 혜자를 떠올린 준하는 딸을 걱정하며 자신을 찾아온 아빠(안내상)에게 밥풀이를 돌려줬다. 혜자는 고미운 마음에 반찬을 싸들고 준하네로 향했지만, 준하와 아버지의 다툼을 목격하고 돌아 나왔다. 준하는 혜자가 가져다 준 음식들로 할머니의 49세를 치렀고, 포장마차에서 혜자와 마주 앉았다. 이후 준하는 혜자를 보며 스물 다섯의 혜자를 떠올렸고, 다시 교감했다.  
혜자를 낯설어했던 아빠도 마음을 열었다. 도시락을 들고 아빠가 경비원 일을 하는 아파트로 찾아간 혜자는 감정을 하는 주인의 모습에 참지 못하고 나섰다. 자신을 향해 누구나 묻는 주인에게 “엄마”라고 말한 혜자는 “젊은이도 엄마 앞에서만 사람한테 이단 맞으면 좋겠냐”며 울먹였다. 함께 돌아오는 길에 혜자의 손을 잡은 아빠는 “내 편 들

어줘서 든든했다”고 말하며 혜자에게 마음을 표현했다.  
25세에서 한 순간에 70대가 돼버린 혜자의 삶은 ‘눈이 부시게’를 통해 웃기기도 슬프게 펼쳐지고 있다. 몸은 70대가 됐지만 여전히 영혼만은 25세인 김혜자의 일상과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해낸 김혜자의 연기가 시청자들을 울리고, 또 웃겼다. 여기에 주변 인물들의 감정까지 세세하게 그려지며 ‘눈이 부시게’는 명품 드라마의 반열에 올라서는 중이다.  
“김혜자 선생님 헌정 작품”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심했던 한지민의 연기도 일품이었고, 준하를 연기하며 할머니를 잃고 기자의 끈기다 던져버린 준하의 삶을 표현한 남주혁의 연기 또한 흡인력 있게 펼쳐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속은 김지민, 표현은 가벼운 오빠 김영수를 연기 중인 손호준도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내며 호평을 받는 중이다. 여기에 이정은과 안내상의 짝나는 부부캐미, 그리고 친구인 김가은과 송상은까지 ‘눈이 부시게’를 가득 채운 배우들의 명품 열연으로 ‘눈이 부시게’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다.

## “6자회담” 확 달라졌다” 극강의 입담 케미X발로 뛰는 토크



이른바 ‘원정회담’에 나서 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장동민과 박명수는 서울대 의예과를 찾아가 학생들과 ‘SKY캐슬’에 나오는 이야기와 현실을 비교해보며 사교육 실태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이경규와 김용만은 전직 체조선수 여흥철을 찾아가 자식의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육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토크가 아닌, 주제에 맞는 주인공들의 견해를 통해 한층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선보인 것.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6자회담’ 멤버 6인에게 실제 서울대 의대 수시 전형에서 이뤄지는 다중 미니면접 (mmi) 모의 면접을 실시. 시청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멤버들이 실제 기출된 제시문을 읽고 면접 방식을 선보여 서울대 의대 면접에 대한 일부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멤버 각자의 센스 있는 대답들이 웃음을 자아낸 한편, 시청자들에게는 할아쉬운 솔대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참신한 체험임이 분명했다.’  
▶ 관록의 예능인들, 그들이 주는 메시지  
‘6자회담’은 매회 누구나 고민하는, 그러나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없던 주제에 대해 메시지를 던진다. 1회 때는 인간에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명’을, 2회 때는 모두가 되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판대’ 이야기들을 다룬 한편, 이날 방송에서 “상식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장동민은 “내가 아는 걸 남이 모른다고 해서 상식이 없다고 하는 게 몰상식한 거 같다”라고, 김용만은 “인격도 상식이라고 본다”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상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촌철살인을 날렸다.  
새털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저마다의 진정성으로 회답을 이끄는 6인의 예능인들 3회 방송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진짜 볼 만했다. 핵심을 찌르는 멘트들도 좋았고 너무 가

법지도 무겁지도 않고” 또 다른 시청자는 “단순 재미만을 주는 여타 예능들과는 달리 많은 생각을 하는 주제들을 다양한 연령대의 MC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재미난 예능”이라고 평하기도.  
과일맛으로 기획된 4부작 ‘6자회담’이 이제 한 회를 앞둔 가운데 4회에는 과연 또 어떤 회답이 펼쳐질지, 이 사회에 뜨거운 화두를 던진 이들의 네 번째 회답에 기대가 모아진다.  
6인의 대표 예능인들이 모여 방송가의 이슈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주제에 대해 거침없이 토론하는 이른바 ‘성역 없는 토크쇼 ‘6자회담’ 4회는 26일 화요일 11시 10분 방송된다.

영화 ‘증인’이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오른 ‘극한직업’을 넘어 흥행 1위에 올랐다. ‘증인’은 개봉 이후 관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화와 입소문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증인’은 지난 19일 하루 동안 11만 6466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오른 ‘극한직업’을 누른 성과다. ‘증인’은 ‘극한직업’의 위세에 밀려 흥행순위 2위 자리에 머물렀다. 하지만 영화를 관련한 관객들의 추천이 이어지면서 서서히 순위가 상승했고,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증인’은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변호사 손

호(정우성 분)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매 소녀 지우(김향기 분)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한 노홍각 순호와 무한대로 순수한 지우의 만남은 그 자체로 영화를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  
위력적인 흥행 기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증인’은 서서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 증거로 ‘증인’은 개봉 이후부터 꾸준히 관객 상승세를 보여왔다. 개봉 첫날 8만명으로 출발해서 개봉 첫 주말 4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주말 지난 이후 월요일에도 9만 4251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첫날의 관객수를 넘어섰다.  
‘증인’은 개봉 8일차인 20일 100만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직업’에 비하면 느린 기록이지만 배우의 힘이 아닌 영화와 입소문의 힘으로 꾸준히 장기 흥행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열풍이 아닌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에 이 영화가 장기 흥행할 가능성 역시 엿보인다.  
이한 감독의 전작인 ‘우아한 거짓말’ 역시도 CGV아트하우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160만 흥행을 기록했다. ‘우아한 거짓말’의 역시도 CGV아트하우스를 통해 적은 상영관을 통해 배급됐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장기 흥행을 만들어냈다.  
‘증인’ 역시도 정우성과 김향기

## “입소문의 힘” ‘증인’ 개봉 7일만 1위 탈환

의 하교길을 지켜보는 소소한 재미와 함께 두 배우의 진심을 담은 연기가 관객을 움직인다. 특히나 온 가족이 보기에 ‘증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영화라는 것을 주말 흥행으로 입증했다.  
‘증인’이 과연 영화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정우성 분)가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매 소녀 지우(김향기 분)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한 노홍각 순호와 무한대로 순수한 지우의 만남은 그 자체로 영화를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든다.  
위력적인 흥행 기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증인’은 서서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그 증거로 ‘증인’은 개봉 이후부터 꾸준히 관객 상승세를 보여왔다. 개봉 첫날 8만명으로 출발해서 개봉 첫 주말 4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주말 지난 이후 월요일에도 9만 4251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개봉 첫날의 관객수를 넘어섰다.  
‘증인’은 개봉 8일차인 20일 100만을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직업’에 비하면 느린 기록이지만 배우의 힘이 아닌 영화와 입소문의 힘으로 꾸준히 장기 흥행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열풍이 아닌 탄탄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에 이 영화가 장기 흥행할 가능성 역시 엿보인다.  
이한 감독의 전작인 ‘우아한 거짓말’ 역시도 CGV아트하우스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160만 흥행을 기록했다. ‘우아한 거짓말’의 역시도 CGV아트하우스를 통해 적은 상영관을 통해 배급됐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응원이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장기 흥행을 만들어냈다.  
‘증인’ 역시도 정우성과 김향기

의 하교길을 지켜보는 소소한 재미와 함께 두 배우의 진심을 담은 연기가 관객을 움직인다. 특히나 온 가족이 보기에 ‘증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영화라는 것을 주말 흥행으로 입증했다.  
‘증인’이 과연 영화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만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음력 1월 17일)

- ▶ 쥐띠: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유 없는 반항심이 강해지고 충돌이 생겨나니 노심초사. 3, 7, 10월생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격. 토끼, 말, 양미를 더욱 가까이 함이 좋다. 첫 달인 여성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듯. 복, 동쪽 길.
- ▶ 돼띠: 몸은 하나요 마음은 둘 셋으로 분주하겠다. 투박한 것만 큼 걸을 수 없겠으나 서둘지 말 것. 기, 사, 자, 흥 성씨는 믿는 마음 변함없어야 한다. 3, 6, 9월생 부모님이나 가족 의견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믿고 나갈 것. 미혼자는 더욱 갈등 심할 때.
- ▶ 호랑띠: 쥐, 말, 원숭이, 닭이가 당신을 염려하고 있다. 그를 실망시키면 당신은 물론 모든 것이 마비 상태 될 듯. 기, 사, 오, 자 성씨는 자기 주장만 세우지 말고 서로 협력 이룰 것. 동업자와 갈등 있을 듯하니 양보 정신이 최상이다.
- ▶ 토끼띠: 많은 것 부러 놓고 걸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격. 5, 10, 12월생은 생각할 여지없이 새로운 길보다 옛 것이 더 좋겠다. 사람을 사귀려면 허나를 택할 것. 세상에 비탈은 없다. 기, 사, 자 성씨 기회는 한 번 뿐.
- ▶ 용띠: 기, 사, 자, 흥 성씨는 자기 주관에 이르는 것보다 부모님과 뒷사람 조언에 귀를 기울 때. 날씨가 덥다고 내리는 비까지 뜨거운 것은 아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고통은 여력이 당할 수 있다.
- ▶ 닭띠: 손아래 사람이 손위사람에게 순종함은 종이나 자신의 의견도 관철시키는 것이 상책이다. 4, 7, 8, 10월생으로부터 답답함은 있겠지만 함부로 절단은 금물. 의학, 조립금속, 종합건설, 섬유업 종사자 자금 시달리겠다.
- ▶ 양띠: 사람과 사람의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금전으로 모든 것 사라다 진실을 다 잃어버릴 수. 5, 7, 9, 12월생 이기적인 태도는 앞길을 망치는 길임을 알라. 기, 사, 오 성씨는 겸손함을 잃지 말 것.
- ▶ 원숭이띠: 본인이 생각한 것을 옳다고만 착각하지 마라. 스스로 잔꾀에 넘어갈 수 있으니 몸을 추스름이 좋겠다. 기, 사, 오, 자 성씨는 걸치레만 화려할 뿐. 속마음 썩어 가고 있는 격. 기, 사, 오, 자 성씨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언젠 필요.
- ▶ 원숭이띠: 새로운 사람 찾으려 말고 상대를 좀 더 깊이있게 생각함이 어떨지. 헛된 망상과 과욕이 나타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을 저버릴 수 있음을 알라. 기, 사, 오, 자 성씨는 마음속에 담고 있지 말고 순발력 있게 일 처리할 때 뒷사람으로부터 칭송 받겠다.
- ▶ 닭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범여만 놓았지 거두어들이지 못하는구나. 주위사람만 잔치상 벌여 준 격. 3, 7, 8, 11월생은 실속 없는 생활에 불만만 커져 가는구나. 기, 사, 오 성씨는 대립하지 말고 대화로서 합의점 찾을 것.
- ▶ 돼띠: 5, 8, 11, 12월생은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는 자세라면 자존심도 굽히고 헤쳐 나가라. 여성은 실속 없는 자존심 때문에 굴러 들어오는 복도 놓치는 격. 새롭게 변동하고자 하나 아직은 시기상조. 좀 더 인내하며 찾아 나서라. 길은 열려 있다.
- ▶ 돼띠: 새가 새끼를 키우려면 동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도 크기까지는 얼마 풀이 그리움을 알라. 기, 사, 오, 자 성씨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자식을 등한시하지 말 것. 기, 사, 오, 자 성씨는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격. 남몰래 눈물 흘리는구나.